



“보유자 고령화 심각... 공개행사 요약 그쳐”

제주도 무형유산 22개 종목 정기조사 토대로 정책 제안 “우수 활동 종목 추가 운영비 전통 공연 등 표준 교재 개발 전체 과정 시연 의무화해야 전통주·식품 산업화 추진을”

제주도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전승 교육의 연속성이 끊길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공개행사가 단순 요약 시연에 치우치며 전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사)한국민속학회에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조사 개선 방안 마련’(2025년) 및 지역 결과다. 제주도 지정 무형유산 중 공동체 종목 2개를 제외한 22개를 대상으로 현장·서면 조사를 병행해 전통 기술·생활 관습, 전통 공연·예술, 의례·의식 분야로 나눠 종목별 핵심 기·예능, 전승자, 전수 환경, 전승 활동, 특기 사항 등을 살폈다.

9일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진은 정기조사 결과 관련 정책 제안에서 전승 지원금 체계 합리화를 우선 꼽았다.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본 전승 지원금 자동 조정 근거 마련과 더불어 가칭 ‘전승활성화지원금’을 신설해 우수 활동 종목(단체)에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자고 했다. 또한 정동, 대나무, 옹기 흙, 땀감 등 기후·농법 변화로 확보가 어려운 자연 원자재들을 도 차원에서 공동 구매하거나 재배지 관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 모색 방안을 내놨다.

전통주·식품 분야의 산업화도 강조했다. 직접 만든 술을 판매하지 못하고 무료 시음 행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조성한 공유 양조장에 보유자가 입주해 제조 면허·시설 기준 문제를 일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꺼냈다. 안동소주 사례를 참고한 ‘제주 무형유산 명주’ 품질 인증제 도입도 언급했다.

전통 공연·예술과 의례·의식 분야는 악보나 표준화된 정리 자료 없이 구술과 행위 답습에만 의존하는 점을 짚었다. 전통 기술 분야

도 구술 중심의 도제식 교육에 치중한다고 했다. 이런 전승 양상은 보유자 혹은 핵심 전승자 유고 시 전형 훼손과 교육 내용 변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전승 교육의 비체계성도 꼬집었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배웠는가를 검증할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전승 체계 인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보유자의 고령화가 상당 정도 진행 중인데도 보조 또는 대체할 전승교육사가 없거나 부족한 현실도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무형유산 표준 교재와 교육용 영상 개발,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개행사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전 종목이 한곳에 모여 별이는 합동 축제 방식이 보여주거식에 그치고 있다며 단독 공개행사 제도를 통한 축제와 전형 실현 분리, 개별 행사 실비 지원, 전 과정(완판) 시연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답습리마제, 송당리 마을제를 들며 전승 공간이 보호구역 내 위치해 시설 개·보수가 어렵

고 고령 전승자들의 안전도 위협한다며 행정협업체 가동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별립장, 구덕장, 고분양태 등 전통 기술(공예) 분야는 완성된 작품과 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권역별 무형유산 공공 수장고 건립, 마을 유휴 시설 리모델링으로 공동 전수교육관 활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정기조사 개선안도 담겼다. 연구진은 제주도의 무형유산 조사가 “행정 여건과 예산 등에 따라 종목·분야별로 순환 시행하는 점검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기조사의 실질적 기능 회복을 위한 조사 주기, 적정 조사 횟수 등을 제안했다.

이번 용역 결과는 10일 제주도 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세계유산본부 측은 “도 무형유산 전체 종목에 대한 학술 용역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종목의 전승 체계가 단절되지 않고 후세대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집합관 <503>

구성:(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용역>



하르바지 골멘: “야드얼아, 이제부터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씬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엔 혼디서 ‘시를 써서 하는 이유’에 대헌 시 이익을 허여보켜.”

시를 써서 하는 이유

누게 익어주지도 안 하는 시를
느시 밥도 안땀는 시를
죽금살금 불영 돌아져뵈자
나 너만 더 굴루어 놀아가는 것 곱은디

시간만 낭비렌 생각하단
개근 남은 시간 뵈에 쓰코 하는 트멍에
시간은 생각 소품으로날 줄아맹기곡
생각이 생각을 나는 그 박삭흔 생각뵈를
글로 뵈찌지 안 하는 두려짐직 현렌

질을 가당으네 못뵈디 들어사른
나도 못 혼 총이렌 혼 길 알게뵈주
나 몸이서 넘쳐나는 그 향기를
글 소품에 안 데끼른 히어뵈죽현영 느려질 것 곱안

지나온 시간을 자국 옷이 밀뵈 와사난
말짜에는 돌아뵈도 나 향기 나 생각 뿌려두뵈
지나온 시간츄기 이정표를 그려두뵈
도시 연필광 종이를 앞이 놉둔다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충 >
<계속>

제주어 풀이

- *써사 하는: 써야 하는신 *익어주지도: 읽어주지도
- *느시: 도저히 *죽금살금 불영: 죽기 살기로 불들고
- *너만 더: 영혼만 더 *굴루어: 여분으로. 따로.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말의 약동으로 형상화 오지원 개인전 20일까지

그의 작업은 감정의 흐름을 표현한 추상 회화에서 출발해 차츰 말(馬)의 형상으로 옮겨갔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말의 움직임으로 시각화했다.

지난 5일부터 포지션인 제주(제주시 관덕로 6길 17 2층)에서 펼치고 있는 오지원 개인전 ‘약동(躍動)’. ‘생기 있고 활발하게 움직임’을 뜻하는 ‘약동’은 이번 전시에서 관계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과정이란 의미로 쓰였다.

오 작가는 굴, 동백, 식물 등 제주 자연의 이미지를 말의 형상과 결합한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이때 말은 기억과 장소성, 상상력을 연결하는



오지원의 ‘두려움의 반격’. 작가 제공

존재가 된다. 그는 “작품 속 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각자의 감정과 기억을 돌아보고, 저마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는 20일까지. 전시장 개방 시간은 오전 10~오후 6시(월요일 휴관). 진선희기자

문화가 쬐지

꿈바당 야외 도서관 운영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올해도 4차례에 걸쳐 도서관 잔디 마당에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 4회 진행한 야외 도서관에는 총 24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운영 일정은 6월, 7월, 9월,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다. 첫 행사는 오는 13일 열린다. 독서 정원, 낭독 정원, 놀이 정원, 체험 정원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다. 이 중 독서 정원에는 에어매트, 캠핑의자, 파라솔, 돛자리, 텐트를 활용한 야외 독서 공간을 조성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별도의 대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끈다.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추가

국가유산청은 제주 용머리 화산쇄설층 등 800여 건의 국가유산 디지털 원천 자료를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누리집과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팹(Fab), 유니티에서 무료로 추가 개방하고 있다. 3D 에셋 545건과 전통 문양 데이터 262건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개방 목록에는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문화유산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제주 빌레못늪, 용머리 화산쇄설층 등 지질유산 데이터가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1900여 건의 국가유산 3D 에셋과 전통문양 데이터를 공개해 약 142만 건의 누적 다운로드 수(2026년 1분기 기준)를 기록했다.

선택의 다른 이름, 믿음입니다.

해낸 사람, 그리고 해낼 사람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미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서귀포시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주 수산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수협 조합장 양기호
모슬포수협 조합장 문대준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미자
성산포수협 조합장 고관범
추자도수협 조합장 김춘옥

제주시수협 조합장 김경필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한용선



제주지역수협조합장협의회 회장 김미자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본부장 현기헌